

“경남불교 키우자” 금강불교대 열고 포교사 양성 헌신

신행현장

조재완 법사의 바쁜날

꽃의 여왕답게 향기와 색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장미가 꽃잎을 떨구고 있는 유월의 장미원. 그 한켠에 자리한 금강불교대학을 오가는 조재완(43·경남포교사 팀장) 법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포교사 양성의 원력으로 시작한 불교교양대학 전반을 챙겨야 하는 조법사는 때론 초심자들의 신심에 불을 지피는 선배포교사로서, 때론 재정을 조달하는 후원자로서 행간이 많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형편이다.

17년전부터 포교사로 활동해온 조법사는 경남지역 포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육군종합 정비창, 제9탄약창 등의 군포교와, 불교장의 문화 보급을 위한 장원불교연합회 활동과 장의 염불 봉사, 불교문화연구소 활동 등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면이 어디든 갔고 무슨 일이든 실천해 왔다.

“초창기에는 포교사들의 위상이 없어 개인적으로 불교문화연구소를 열어 불교문화답사나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주력해 왔죠” 조법사의 말처럼 포교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전부터이다. 그러나 점점 넓어지고 전문화 되어가는 포교현장에서 경남지역에 5명뿐인 포교사 수는 활동에 한계를 가져왔고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그로서는 대책이 절박했다.

“스님들이 포교사를 양성하는 교양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길러주고 저는 활동에만 주력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재가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장미원 한켠에 법당과 강의실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조계종의 인가를 받은 금강불교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내 최초로 조계종 인가 불교교양대학이 탄생한 것



◇지난해 9월 성주사에서 열린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에서 입학생들에게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조재완 법사.

이다. “불법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하는 포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서원 하나로 적자가 뻗은 불교교양대학 재정을 도맡으면서까지 시작한 일이지만 주위에선 재가자가 너무 나서서 것은 아닌가 겁이 보지 않는 시선도 있었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17년동안 경남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인정받아온 그의 경력과 넓은 교유가 든든한 지지기반이 되어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인원이 25명밖에 되지 않지만 “경남지역 포교사들의 조직이 어느정도 꾸러지면 스님들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제 역할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는 조법사는 자주 할 일이 떠올라 계획이 점

군부대 정기방문

장의염불 봉사 등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 실천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불법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재완 법사는 늘 자신을 추스리며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서울을 오가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 다니고 있다.

“자신을 위한 투자가 가장 많다”는 조법사는 금강불교대학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부처님 법 널리 전해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면 좋은 세상이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세상에서 자신이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점 많아지고 있다. 조법사가 세우고 있는 큰 계획의 줄기는 두가지. 하나는 불교의 재가 조직을 갖추어 사회 운동, 복지 분야에서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금강불교대학을 불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전문 대학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불법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조재완 법사는 늘 자신을 추스리며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일주일에 두 번 서울을 오가며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 다니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인과법만 마음에 새겨도 훌륭한 불제자입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교는 그 사상이 심오해서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불제자로서 신행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문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불교의 첫 걸음부터 한계단 한계단 씩 밟아 올라가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입문하는 제자들에게 인과법문을 하셔서 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법이야말로 불교인이나 아니니를 가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선행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이 인과공부의 법만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면 훌륭한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과 사고

‘인과’ 기준 삼자

“업에 따라 윤회의 굴레는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굴리면서 가노라.

“업에 따라 윤회의 굴레는 생기고 마음이 그것을 굴리면서 가노라. 돌고 돌다 그 인연이 다하는 곳에 이르면 생사의 굴레는 돌지 않고 멈추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인과와 사울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10여년전쯤 안양교도소 법회에서 알게 된 재소자가 생각납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과 훗터 투성이의 얼굴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도 이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 두 눈만은 매우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 맑은 눈 때문에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고교시절 우연히 길에서 불량 학생과 시비가 붙게 되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재소자였습니다. 때를 맞고 3일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되자 분에 못 이긴 그는 무슬도

장에 다니며 싸움 기술을 익혔고 기어이 그 불량학생에게 복수를 했어요. 결국 폭력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교도소를 법망듯이 드나들다 보니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어느날 교도소에 앉아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고등학교때 때를 맞고 복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급진적하 밀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불교책을 빌려 읽다가 인과를 알게 되었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과보가 있다는 인과법문을 접하자 마음이

깊이 와 닿는 바가 있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와는 내가 사정이 생겨 교도소 법회를 그만두게 되면서 헤어졌어요. 그 뒤에도 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지난해 우연히 그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대 시절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 한 인과로 오랜 세월 방황한 그가 먼 길을 돌아서 늦게나마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한 것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훌륭한 수행자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듭니다. 금생에 어느 산모퉁이에서라도 한번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를 떠올릴 때면 인과와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법을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인생은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삶도 인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생활속의 불교

빛쟁이로 살지 않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자급자족도 실은 불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는 배풀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들끼리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다. 자연의 혜택 없이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나 아닌 것로부터의 은혜로 살아가는 셈이다.

우리는 흔히 제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것은 욕심을 억제하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빛을 지지 말라는 뜻이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 이외의 것으로부터 빛을 꾸준히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이상, 나의 삶은 순간순간이 빛을 지는 삶인 것이다. 고로 사는 동안에 빛을 늘

만 간다. 꾸준히 되갚지 않는다면 누구나 눈 감는 순간에 엄청난 빚더미에 빠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더 갖기를 바라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다. 더 갖겠다는 욕심은 빛을 더 지겠다는 것이니 어찌 일생을 통해 빛 잔치나 하고 살아가려 하는 나쁜 물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수와 만족을 넘어 은혜에 감사하고 매순간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감사한 줄 알아야 감을 마음도 생긴다. 감사한 줄 모르는데 배불고 나눌 마음인들 생기겠는가. 감사할 줄 알아야만 의당 갚아야 하겠노라는 마음이 생긴다. 절로 무주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일상 속에서 감사

할 줄 모른다. 특별하게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면 으레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래서 예뻐 때마다 오종대(五種大恩)만이라도 명심하라고 가르친다.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아침마다 이를 외우라고 했겠는가.

먼저 지금의 나 자신에게 감사해 보자. 내 정신이 바르고 사지가 멀쩡하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자. 그런 다음에 감사의 대상을 주변으로 확대시켜 보자. 내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감사한 존재로 마음에 떠오를 것이다. 내 이웃, 내 직장의 동료 중에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얼굴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저 푸른 하늘도 감사하고 바람 물 불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龍眼

허가번호 파주시 제200호

묘지걱정 이젠 안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장례문화 가족 납골탑으로 해결하십시오”

화장을 해 납골봉안 하는 장묘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요즘은, 파주시 거북산 약수암 경내에 가족 영탑공원을 조성하여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 하고자 합니다.

가족/선산탑 부부탑, 개인탑 합동탑

약수암납골탑의 특징

- ★탑 하나에 167의 영가를 안치해 가족 대대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약수암에서 스님이 직접 설, 한식, 백종, 추석등 1년에 4회 합동제사를 올립니다.
- ★경관이 좋은 사찰 경내에 있으며, 100기 미만의 소규모로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 합니다.
-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파주시 지정 약수터에서 맑은 샘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교묘이 관리합니다.(벽제 화장장에서 조분기리)
- ★납골탑의 재질은 국내산 화강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 3리 347-1
☎ 전파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문의/처 ☎(031)952-4801 H·P 011-234-4801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르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파, 생체 에너지파, 슈퍼원자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 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색체를 비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행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 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르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중상별)

1.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2. 배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땀기고 절인 증상 등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얼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노징에자
5.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관지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6.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요실금, 습진, 무좀 화상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7.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제증상)
8.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9.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형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 F.D.A에서 특정 자기파(특정자기파)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고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金賞
세계발명품 박람회
금상수상

※ 각종자료 - 무료 우송함 ※ 전국 대리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대표전화 : 주,야 02)522-2464 / H.P: 011)9742-2550